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재열



지난 1983년 7월 29일 밤 10시 51분 28초, 4천만 명대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난 때다. 이때부터 정부는 더욱 강력한 가족 계획운동을 전개했다. '물만 남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씩만 남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마스크에 등장했다.

부와 민간연구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요 통계지표만 해도 1년에 500건이 넘는다. 그러나 전국 단위 통계가 대부분이다. 시·군 단위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통계가 바로 서야 지방이 산다

라 있더라도 오차가 너무 심하다. 몇 년 전 광주 모 구청의 실업통계를 산출한 결과 오차가 8.6%나 됐다.

최근 들어 독자적인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강원도가 지난해 11월 통계청과 함께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광객들의 85% 이상이 가족 단위나 개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강원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지역의 서비스업 활동지수를 개발해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전주시도 고용통계조사를 근거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제 통계도 지방자치시대다. 국가발전 위해 전국적으로만 취급되던 통계가 이제는 지역개발을 위한 바로미터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한해 22가지의 지역 통계를 개발했으며 올해도 10여 종 류를 새로 준비하고 있다. 단재장의 '갑'에

화를 파악하고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하는 기초 자료다.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사회간접자본(SOC)이라면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 지식 인프라는 통계다. 사회간접자본에서 크게 낙후돼 있는 광주·전남이 통계 인프라 구축에서도 뒤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는 핵심 지식 인프라

정부와 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가계(家計)에서도 통계를 멀리하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지자체가 처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기업이 상품 마케팅에 앞서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년 전 전남도민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GRDP)이 전국 5위라는 믿기 힘든 발표가 나왔다. 여수국가산단의 총생산액이 도민 인구수로 나뉘지면서 일종의 통계 착시현상을 일으킨 결과다.

실질적인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이 얼마고 주민평균소득과 부채는 타 시·도와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기본적인 자료를 대이터와 하는 것이 급선무다. 말로만 낙후를 외쳐서야 설득력이 있겠는가.

(사회 2부장) ajkim@kwangju.co.kr

시설

'지역화합 앞장서겠다' YS 발언 주시된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5·18 국립묘지도 가고, 부산 민주공원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단체의 초청으로 22일 광주를 방문한 김 전 대통령은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지역화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YS의 이 같은 발언은 영원한 정치적 라이벌인 DJ와의 화해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역감정에 기반한 정치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YS와 DJ는 정치인으로서 이를 짓은 다 다른 사람들이다. 더 이상 현실정치에 대한 욕심을 부리려 안 된다. 다만, 국가 원로로서 순수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들에 의해 깊게 패인 지역감정의 골을 메우는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분할적 정치구도를 무너뜨리는 데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DJ와 YS의 만남과 화해는 영호남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한 우리 정치문화를 위해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또한 인권 신장, 소외세력에 대한 관심, 정치발전 등에도 많은 공을 세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역사의 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지역에 기반한 정당을 배경으로 정치를 해왔고 이는 결국 지

역감정에 기반한 정치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YS와 DJ는 정치인으로서 이를 짓은 다 다른 사람들이다. 더 이상 현실정치에 대한 욕심을 부리려 안 된다. 다만, 국가 원로로서 순수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들에 의해 깊게 패인 지역감정의 골을 메우는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분할적 정치구도를 무너뜨리는 데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DJ와 YS의 만남과 화해는 영호남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한 우리 정치문화를 위해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또한 인권 신장, 소외세력에 대한 관심, 정치발전 등에도 많은 공을 세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역사의 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지역에 기반한 정당을 배경으로 정치를 해왔고 이는 결국 지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선진화 방안은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해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시민단체를 비롯 정치권과 학계 등이 반발하고 있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총괄될 수 없다.

국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다. 정부가 내놓은 형식적인 정보공개와 브리핑 제도로는 언론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정부의 일방적 홍보성 보도자료를 게재하면서 어떻게 언론 본연의 비판 및 감시기능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정부 부처에 설치된 37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권역별로 묶어 3개로 통·폐합하고 개방시간 제한, 공무원 개별 언론접촉 금지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경찰서까지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할 정도다.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니 할 말이 없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낡은 취재시스템을 선진적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 그동안 언론사의 취재경쟁 과열과 기사실 운용에 따른 잡음 등 부작용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언론의 취재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면'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정부는 공정한 취재환경의 조성이라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취재의 자유가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접근을 차단한 채 정부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해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선진화 방안은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해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시민단체를 비롯 정치권과 학계 등이 반발하고 있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부 부처에 설치된 37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권역별로 묶어 3개로 통·폐합하고 개방시간 제한, 공무원 개별 언론접촉 금지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경찰서까지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할 정도다.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니 할 말이 없다. 정부는 공정한 취재환경의 조성이라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취재의 자유가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접근을 차단한 채 정부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해선

無等鼓

주식 광풍에 휩싸인 중국 주식투자자들이 불면증, 객장 속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9·3 족(族)'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모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가가 급등, 코스피지수 1천 600시대를 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과 달리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열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제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가가 폭락하는 꿈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벌떡 일어나거나 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 겹치기 힘들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증권사 객장을 짐싸야 먹고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투자자들 중 증권사 직원들은 객장 오픈 전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정도다.

'9·3 족(族)'



'9·3 족'이란 주식 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말정하다가도 증시 마감 이후 정신이 흐려지는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 군(群)이다. 중국 주식투자자들 사이에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하루라도 시장을 보지 않으면 좌불안석이다. 증시 마감 이후 비로소 일을 시작하지만 손에 잡힐 리 없다. 결국 인터넷으로 추천종목을 섭렵하는 것조차 불안감을 떨친다.

주식투자자들의 자문소로 심리상담사들이 덩달아 호황을 누린다. 상담사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심리 장애가 있는 사람은 투자를 삼가고 고열압 환자 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객장에 나갈 때 심박약을 휴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권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주가가 급등했지만 '물지마 투자'를 하던 예년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에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 '대박'을 쫓는 단기 투자 보다는 가치투자 장기 투자하는 워런 버핏의 지혜를 배울 때다.

대에 대비하라고 권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주가가 급등했지만 '물지마 투자'를 하던 예년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에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 '대박'을 쫓는 단기 투자 보다는 가치투자 장기 투자하는 워런 버핏의 지혜를 배울 때다. /김우석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은펜칼럼

차영호



그리스에서는 배우가 죽으면 국장을 한다. 정치적 실세나 경제적 거물도 죽으면 조용히 가족의 품에 안기지만, 배우는 시민의 애도를 뒤로하고 장중하게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다.

것이었고, 문화는 국가의 모든 주요현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여유 그리고 높아진 교육수준과 함께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자연히 증대되고, 이에 따라 서구선진 국가들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 하고 있다.

특히21세기는 '정보화사회' 또는 '커뮤니케이션사회'이다.

커뮤니케이션사회는 다양한 미적가치에 입각하여 생산된 작품이 일반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수용되고 그 반응이

기고

장리



전남도와 중국 절강성 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남도청 기업통상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양 지역간 1명씩 1년간 교환 근무하는 사업으로 우의와 상호협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남도는 절강성 뿐 아니라, 중국 상해시, 일본 고치현, 사가현과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된 근무부서인 전남도 기업통상과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진관리 기법과 경험을 배우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 경제, 정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있다.

둘러 보았다. 모든 관광지는 관리질서와 환경정리가 잘 돼있었고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과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잘 구비돼 매우 편안하게 느껴졌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진 박물관과 전통문화 홍보물이 인상 깊었다.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도로망과 도로마다 만들어진 장애인 시설, 규칙적으로 운행되는 공공버스 체계, 작은 동네마다 운동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홈스테이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데 세대의 책 중 대부분이 교육에 관련된 것이었다. 한국은 정부에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아주 중요시 하고, 특히 중국의 역사, 인문,

더 많이 배워 韓-中협력 기여했으면

한국에 온 후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한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였다. 목포에서 생활하며 도청 통근버스를 타고 사무실에 오전 8시 20분쯤 도착하는데,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은 이미 출근해 업무준비를 마친 상태다.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사적인 통화와 잡담없이 열심히 일한다.

또한 짧은 회의 시간과 일반 직원들도 국장, 과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토론하는 수평적 체계가 돋보인다.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책임감이 강하고 핵심 업무 위주로 빠르게 움직인다.

지난 2월에는 기업통상과 직원들의 배려로 설을 보내기 위해 고향에 다녀왔다. 3개월 동안 떨어져 있던 10살차리 딸과 온 가족을 만나고 왔는데, 직원들의 정성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발전하는 전남을 널리 알리고 돌아왔다.

3월에는 남도문화체험, 직원 가정 홈스테이, 직원과 주말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남의 문화유적과 중요시설을

지리 등의 많은 부분을 한국 어린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목포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생활에 더욱 깊이 녹아 들어갔다. 정치와 문화 등의 방면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음의 분야를 더 배우고 싶다.

또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싶다. 한국 중소기업 발전과 상황과 관계된 산업정책도 잘 알아줬으면 한다.

한국 공무원의 직장 및 일상생활 중의 장점 그리고 한·중 양국 우정과 교류에 관한 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한국에 온지 이미 반년이 지났지만,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하여 소중한 배움과 추억들을 기업통상과 직원들과 만들어 가고 싶다.

(절강성 중소기업청 주임·전남도 파견공무원)

문화수도와 문화정책

수 없고, 그리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사회의 영혼을 맑게 하는 일,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은 누군가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론 정신적 소양은 안으로 사회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고, 밖으로는 국부를 증진하는 힘이 된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즉 문화의 주체가 단지 예술가나 평론가만이 아니라 일반대중-국민개개인 의 사회 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 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각 국민 개개인의 정치의식 및 경제역량이었다면, 문화가 중심점을 이루는 커뮤니케이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각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수준과 역량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정책 수립은 국가나 지자체의 문화수준을 생각하는 정책이 되어야하며 특히,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문화수도의 문화정책은 생산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일반수용자의 문화수준을 높이기위한 직, 간접적인 지원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 소득 규모가 아직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을 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치적 민주화를 확립시키고 경제적 변형을 달성하는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신는 코너입니다.

쌀 브랜드 명칭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

할인 마트에 갈 때마다 너무 많은 쌀 브랜드 명칭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무세미, 러브미, 아침 햇살, 해풍맞은 쌀 등 여러 가지다.

로 만들어낸 브랜드라고 한다. 지역마다 소비자들에 팔리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쌀 명칭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역적 특색이나 토양적 기후적 특성을 감안했으면 한다.

한참을 보고서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브랜드 명칭은 자칫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유연희·목포시 무안동

위인전, 미래지향적·도전적 방향으로 쓰여져야

우리나라 위인전의 대부분은 주인공이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달리 '신동'이니 '천재'니 하면서 특출한 데가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기 쉽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의 전기는 어린 시절 엉뚱한 짓 잘하고 열등생이었던 학생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제일의 과학자

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나도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된다.

원래 어린전 약간 과장되어 쓰이기 마련인데 이용하면 우리나라 위인전도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쓰여야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는 평범한 진리를 책속에서 깨우칠 수 있도록 말이다. ▲우항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